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2013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 : 40, 레 19 : 18)

행동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seoulchurch.or.kr

에스더서 강해

### 하나님의 신데렐라

(에 2:5-18)

### God's Cinderella

(Esth. 2:5-18)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유다가 완전히 초토화 되었을 때 전쟁에서 목숨을 구한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모르드개는 그렇게 끌려온 노예의 아들입니다. 그에게는 민족적인 상처가 있었고, 아무 소망도 없는 참으로 처량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에 사촌 여동생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님을 잃은 고아였습니다.

화려한 수산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참으로 존재감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영광과 권위와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1.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은 모르드개

모르드개는 철저한 야훼 신앙을 교육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스더를 팔처럼 양육하며 신앙훈련을 시켰습니다(7절). 모르드개는 하나님을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믿었고, 어찌하든지 자기가 그 거룩한 일에 쓰임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아버지 같은 모르드개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습니다(10절).

2. 순수한 마음을 소유한 에스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15절).

에스더는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내적인 담대함입니다.

3. 하나님의 은혜

에스더가 처음에 수산궁에 끌려 간 것은 강제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에스더는 헤개의 수하로 들어갔고, 헤개는 에스더를 좋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신데렐라가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여금 신앙훈련을 받도록 하신 후 마침내 놀라운 회복과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위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God's people, Mordecai and Esther eventually appear in the text. When the southern part of Judea was attacked by Babylon and Judea was completely reduced to ashes, Jewish people who were spared from the war were taken as prisoners of war. Mordecai was also a slave's son taken as a prisoner of war. He lost his nationality, was no longer important in society, and simply lived out his extremely pitiful life. And there, his cousin, Esther was an orphan who had lost her parents at an early age.

If we compare the people in the citadel of Susa with them, Mordecai and Esther would be classified as non-persons; however, the almighty, creative God who is glory, honor, and power, the Lord of hosts pays attention to them.

1. Mordecai received a thorough education on faith

Mordecai was a man who had thoroughly received an education of faith by the Lord of hosts, Yahweh. He brought out Esther like his own daughter and trained her faith (v. 7). Mordecai believed that God would save the chosen people, Israel. And, he himself wanted to be used for such a holy mission.

Esther listened to Mordecai carefully just like her own father and obeyed him (v. 10).

2. Esther who possessed a pure heart

“When the turn came for Esther to go to the king, she asked for nothing other than what Hegai, the king's eunuch who was in charge of the harem, suggested. And Esther won the favor of everyone who saw her” (v. 15). Esther asked for nothing other than what the eunuch suggested. This is the type of person who can trust all to God and take courage in any situation

3. God's grace

At first, Esther was forcibly taken to the citadel of Susa; however, Esther was placed under the care of Hegai among many people, and Hegai thought the better of Esther. And in verse 17, king Xerxes was attracted to Esther more than any of the other women. In a word, this is just God's grace.

My beloved Christians!

The world was lost but God remembered Mordecai and Esther, and at the end made them become God's Cinderella.

It is possible for us to have a hard time in the world. However, God brings us into a wonderful recovery and victory in the long run, after He trains us in our faith.

By looking at the Lord of consolation and power,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win the world and take the victor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2013년 1학기 장학생 선발

신청마감: 1월 16일(수) / 수여식: 2월 3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하영수 장로)는 2013년 1학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반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대상은 신대원생, 대학생, 교역자·직원·선교사 자녀, 극빈자, 장애인, 고등학생, 특기자이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평균B이상), 본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특기자는 6개월 이상)이며 교회봉사에 적극적인 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장학회 심사에 필요한

서류(교구추천서 혹은 교회학교 추천서 중 택일, 자기소개서 혹은 신앙 간증문 중 택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1월16일(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정의 신청서는 본교회 홈페이지 (<http://seoulchurc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 제출시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부서나 교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74]

(문 73)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임으로 얻어낸 조약을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답) : 여호수아 9장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힘으로 어떻게 여리고와 아이성을 멸하였는지를 듣고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 꾀를 내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가 아니라 멀리서 살고 있는데 당신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나라 장로들과 주민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여 왔노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멀리 살고 있음을 입증시키려고 뜨거운 떡을 가지고 출발했으나 길가에 도착했을 때엔 이미 말라 곰팡이가 낫고 새 포도주 부대가 남아 찢어지게 되었으며 옷과 신도 긴 여행으로 낡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실제로는 하룻길도 안 되는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이면서까지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하여는 죄의식을 느꼈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기브온과의 조약을 지키도록 강요된 바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기브온처럼 속여서 맺은 조약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조약은 일반적인 조약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조약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큰 실수는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묻지도 않고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입니다.

그들은 곰팡이 난 마른 떡과 헤어진 포도주 부대와 옷과 신발을 보고 자기 판단으로 이 일을 단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조약을 맺음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맺은 조약에 매인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기브온과 맺은 조약을 깨뜨리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 몇을 죽게 했기 때문에(삼하 21:1-14)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 새해에 변화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와 교육

중·고등부, 청년 I·II·III  
오늘부터 교회학교별로 예배드려

지난 주일 교육 1국의 교회학교별 예배에 이어 오늘부터 중·고등부, 청년부도 교회학교별로 자체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착오가 없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요일/시간	장소
유년부	주일 오전9시	701호
초등부	주일 오전9시	601호
중등부	주일 오전9시	501호
고등부	주일 오전9시	101호
청년1부	주일 오후1시30분	101호
청년2부	주일 오후1시30분	101호
청년3부	주일 오후1시30분	101호

## 2013년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빛"  
(마 25:40, 레 19:18)

- 고등부를 시작으로 -  
17일(목)~19(토), 아가페타운

금주부터 2013년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가 시작된다. 이번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는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빛"(마 25:40, 레 19:18)을 주제로 진행되며 각 부서는 겨울수련회 계획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예산심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영의 침을 얻는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를 위해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24(주일)~26(화)	서울교회	예수님처럼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세요	구본해 전도사
유저부			작은 이들의 친구	박다형 전도사
유년부			나는 좋은 친구입니다!	김안성 목사
초등부			작은 이들의 친구가 되세요	최만혁 전도사
중등부	1.24(목)~26(토)	아가페타운	내 양을 먹이라	박노철 목사 노정호 목사
고등부	1.17(목)~19(토)	아가페타운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빛	박노철 목사 이종진 목사
사랑부	2.17(주일)	서울교회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빛	한상은 목사
청년1부 (대학부)	2.1(금)~2.2(토)	아가페타운	So One(소원)	박노철 목사 허승일 전도사
청년2부	2.1(금)~2.2(토)	아가페타운	So One(소원)	박노철 목사 오세광 목사
청년3부	2.1(금)~2.2(토)	아가페타운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빛	박노철 목사 정수길 목사
디아스포라	1.26(토)	서울교회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빛	박노철 목사 서명철 목사
에바다	1.26(토)	서울교회	작은 자들의 빛이 되자	임규현 목사
신혼가정부	2.16(토)	서울교회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빛	한상은 목사

### 2013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제1권사회 한나전도회 이삭선교회 엘리야선교회 리브가전도회 호산나찬양대 최원석(박길희) 최향봉 박석현(김점숙) 육순자 이원일(장기숙) 오치열(하 숙) 송동선 임영숙 임선철(이영주) 송지훈 이상호2 김주년 한건수(유안순) 양지훈(최성희) 이준호(이은희) 박정선 김상태 안혜경 이홍록 김만집(이영자) 임흥수(하옥봉) 이훈 김정애 정진순 김재근(안분선) 임상현 하국수(조영자) 이현수(조 회) 신용식(김신영) 김영준 원명희 오명걸 노문환 송인덕 이영기(이영숙) 오정수(이영희), 김진하(전현주) 이상우 김명옥(오은경) 김주현(권은주) 김권집(왕경애) 이남성(최영란) 신영신 전광영(김인숙) 윤동수 임홍식(신선주) 김선태(김옥순) 장윤기(노애리) 하인선(남태순) 이강진(이신영) 김광민(박민숙) 주동재, 김희열(유슬기) 노제현 김철진(노의정) 김정희10 김재중(김영경) (다음 주 계속)

### 2013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김재중(김영경) 김지영(김선희) 이강진(이신혜) 윤형준 박권준 김재근(안분선) 정지에 정윤재 육순자 임상현 정수진 박영실 진준식(진원식) 서양지 김광욱(서영희) 제1권사회 김만집(이영자) 이원일(장기숙) 유경희 임흥수(하옥봉) 이훈 노종렬 김가순 우선영 우현주 김주현(권은주) 한상민 김광민(박민숙) 주동재 김희열 김유신 이미연 장명순 하인선(남태순) 박정선 이준호3 이은희7 이동귀 백도환 노문환 박석현(김점숙) 이영기(이영숙) 오정수(이영희) 김진하(전현주) 최향봉 박화실(이은지) 임만석(임만용) 문수자 오은경(김명옥) 리브가전도회 오치열 이지동 이유성 우도현 박정섭 이상호 김주년 김필임 신영신 조영아 박내길(오정숙) 김영주(이해순) 전광영 한나전도회 김선태(김옥순) 박운혜 한건수(유안순) 김혜수(윤운) 양지훈(최성희) 장해운 장해라 (다음 주 계속)

교육 1국 예배를 시작하며

#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

김인성 목사(유년부 지도)

2013년 새해 첫 주일 오전 9시, 유년부와 초등부가 부서 자체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동안 가족예배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배웠던 예배의 경건성은 잘 유지하면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교와 찬양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예배위원(기도, 헌금위원, 안내위원)으로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서 자체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 그동안, 교회에서는 초등부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예배 공간과 좋은 교사실을 마련해 주셨고, 유년부 예배실의 내부 공사를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부서 예배실을 대청소하고, 예쁘게 장식하고, 필요한 비품을 철저히 구비하는 등, 어린이들에게 알맞은 예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며 여러모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예배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기 위해, 예배 순서에 관하여 여러 차례 의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의 리허설도 잘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왔던 유년부와 초등부의 첫 부서 자체 예배는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고, 어린이들의 모습도 매우 진지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어린이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성장해 가기를, 또한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어린이들이 되도록, 서울교회 모든 가족들께서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젊은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 젊은이 들이여 젊은이 예배로!

오세광 목사(청년지역담당)

젊은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늘 떠나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울교회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서길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약한 신앙, 기복적 신앙, 성공 지향적인 신앙을 꿈꾸는 젊은이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젊은 세대의 삶이지만, 함께 모여 울고 웃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젊은이들만의 예배 공간이 있다면,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젊은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청년1,2,3부가 연합으로 모여 집회를 가져왔습니다. 젊은이들을 향한 강한 메시지와 열기 넘치는 찬양,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자고 함께 소리쳐 기도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젊은이들이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젊은이 예배를 준비하게 된거군요!'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울교회 다음 세대의 첫 주자인 청년 1,2,3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바로 서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든든해집니다. 이들이 바로 서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2013년 1월 13일 오후 1시 30분 1층 웨스트민스터홀에 오셔서 기도와 함께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교회 젊은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고 있는지 증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이제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 편지왔어요

지구 어느 한쪽은 너무 추워서 독거노인들이 두툼한 겨울잠바를 입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구 서 태평양 팔라우에는 더워서 선풍기와 에어컨을 켜고 잠을 청해야 합니다.

여기는 여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런닝 셔츠가 땀에 금방 젖고 곧 갈아입어야 할 상황입니다. 러시아나 몽골에 강추위를 생각하면 그곳의 선교사님들을 이곳으로 잠시 와서 쉬라고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참 다양합니다. 언어도 무척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피부도 다르고 문화와 정치 경제 지역등등 모두 어쩔 이렇게 다양할까요.

어느곳에는 테러로 죽어 가고 어느곳에서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사고로 ... 수없이 많은 일들과 사건으로 죽어갑니다.

한 해동안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셔서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게 다가 옵니다.

온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서울교회 성도여러분의 가정에 복된 새해를 맞이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 감사 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모두 주님이 인도해 주심을 강렬하게 체험하면서 팔라우와 태평양지역과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을 복음화 하기위해 사용되길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머나먼 팔라우에서 정상진 홍성임 선교사 올림

지난 한 해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기쁘고 복된 소식이 이곳 케냐 슬럼지역 작은 곳 아마니 음악학교에도 찾아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척박하고 어두운 케냐 땅 도시민민 어린이들과 어려운 신학생, 찬양 리더, 사역자 훈련을 위해 우리를 보내시고 교육의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이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가르치며 깨우치게 하심을 감사 드리고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 부탁 드리며 가정과 모든 일에 강건하시길 소원합니다



케냐에서 김낙영 오정녀 선교사 올림

밝아오는 2013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박노철 담임목사님과 당회원 그리고 선교위원회, 인도기도팀, 각부서 인도기도팀, 교회와 온 성도님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인도에서도 지난 연말 성탄절 예배와 행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들도 교회학교 어린이와 성도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브행사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박노철 담임목사님의 성탄 카드와 선교지에서 건강을 위해 너무나 좋은 건강식품을 보내어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더욱 더 선교 사역에 최선과 성실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총 그리고 성령님의 동행이 늘 충만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인도 벵갈루루에서 우상식 김정옥 선교사 올림

고등부 수련회 초대

이종진 목사(고등부 지도)

# 고민하지 맙시다



고민하지 맙시다...  
 갈등하지 맙시다...  
 2013 고등부 겨울수련회... 갈까? 말까?  
 학원가야 하는데...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아니, 강!!! 갑시다.  
 당신이 고등학생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번 겨울수련회는 무조건 와야 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도대체 3월부터 시작되는 고3... 고2... 고1... 그 만만치 않은 생활을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가요?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이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건강이 없이 제대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아니, 아니, 아니 되오!!!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이라는 주제 하에, 2013년 1월 17일(목) ~ 19일(토)에 아가페타운에서 진행될 고등부 겨울수련회에, 서울교회에 속한 모든 고등학생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겨울수련회를 통하여 기독교소년으로서 영적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며, 인생의 비전을 찾아 세상의 빛으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는, 새벽이슬 같은 고등학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학생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기록물 제출 공고

교회는 지난 한 해 작성된 각종 기록물들을 제출받는다. 당회 이하 모든 부서의 서거나 기록담당자는 2012년 한 해 동안 기록한 예배일지 및 회의록, 출석부, 보고서, 주보, 인쇄물, 주요 사진 등 각종 기록물을 1월말까지 순례자실(704호)로 제출해 주기 바란다.

또 2011년 이전 과거 기록물도 보관중인 것이 있으면 반드시 제출해 주기 바란다. 컴퓨터 파일인 경우엔 서울교회 홈페이지내에 “기록물 보관실”로 파일을 올려주기 바란다. 파일 제목에는 부서명과 기록물명, 담당자명을 써주기 바란다. (예: 초등부 회의록 홍길동) 제출하신 자료들은 교회내 역사자료실에서 정리해 영구 보존할 예정이다.

(담당: 김민철 집사, 최영철 집사, 허숙 권사)



지난 1월 3~4일 진행된 성경통독 사경회

## 2013 비전2020 후원자의 밤

### 1월20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우리교회는 비전2020(부장 이갑진 장로) 후원자의 밤 행사를 20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갖는다. 군 복음화를 통하여 민족의 75%를 복음화하는 이 웅대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2013 비전2020 후원자

김재근, 안분선, 임광우, 최미희, 정유정, 이용식, 강영순1, 김가순, 이훈, 임흥수, 이준수, 서영세, 김종자, 이민희, 신순자, 전원순, 이덕빈, 전정숙, 정영애, 이광열, 엄금순, 이원일, 장기숙, 안선희, 이영옥, 최금봉, 박광수, 김정자, 김광옥, 서영희, 서양지, 진승근, 이혜선, 박영식, 육순자, 임상현, 이갑진, 최광혁, 하정자, 강나훈, 하인선, 남태순, 장명순, 박정선, 양득춘, 오유식, 유선희, 김인혜, 강애자, 김유경, 정복순, 장인원, 오영자, 김정희10, 한은경, 노제현, 김알영, 주동재, 이운영, 이상애, 조순열, 김광민, 박민숙, 김주현, 우현주, 우선영, 이강진, 이신재, 이준호3, 이은희7, 이동만, 방효철, 김진숙, 이영희, 조정식, 김영식, 배재승, 임분도, 이부자, 오광환, 이동기, 김관홍, 이현수, 조희, 이예은, 이은우, 김선태, 김옥순, 김혜수, 윤운, 전용식, 조명옥, 정희순, 백정순, 윤동수, 김인숙, 김영주, 정미자, 유하영, 이남성, 우정서, 우정연, 우정균, 박정섭, 이상호2, 김태욱, 김주년, 조정옥, 이우성, 김정숙8, 박두호, 노정숙, 이신애, 최영준, 오치열, 임종태, 임영숙, 김명옥, 전용순, 임선철, 이영주, 최필선, 민정이, 박화실, 이은지, 이미란, 황재연, 원용규, 박이선, 최향봉, 김진하, 전현주, 최학인, 오정수, 이영희, 이영기, 이영숙, 박석현, 김점숙, 노문환, 최입수, 원명희, 이승선, 박순봉, 신용식, 이삭선교회, 한나전도회, 리브가전도회 (다음 주 계속)

##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 신청을 이메일로 -

그동안 연말정산 자료를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서를 접수 받아 발급 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올해부터 교회메일로 신청서를 접수 받고 신청한 성도들의 메일로 회신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보내게 되었다. 단, 메일사용이 어려운 성도들은 기존에 신청하던 방법대로 하면 된다.

- E-mail : sc5581106@gmail.com
- 작성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⑤가족합산여부
- 문의전화 : 558-1106, 2193-8811
- 담당 : 소윤경 집사
- 상담부에서 국제형 연말소득정산 안내자료 배포중 상담부 간사 이정희권사(010-5779-1329)

###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3일(주) 평강교회 장로헌신예배 설교를 한다. 18일(금) 기독교학술원 월례발표, 기도회 설교를 한다. Save N.K 이사회를 소집한다.
- 공연: 3교구 이승현 성도 (유니버설발레단수석발레리노) 「백조의 호수」 일본공연 1월19~20일
- 특녀: 5교구 김태원 집사 조상희 성도 12월29일
- 주간식당봉사: 제2권사회(1.13) 빌립선교회(1.20)
- 금주의 식사: 양인수 집사 이명희 권사 가정 안홍희 집사 전화진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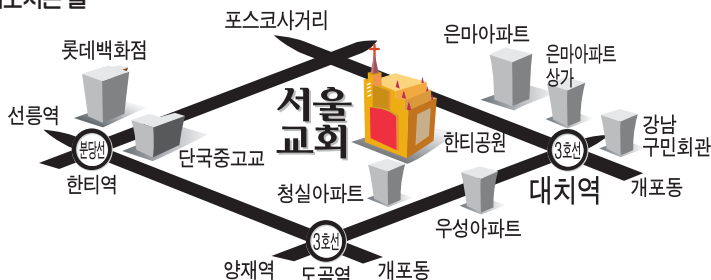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부서별로 드리는 다음세대 예배가 그들의 열정을 온전히 담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큰 은혜의 부흥이 임하도록
2. 고등부 겨울수련회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각 부서의 수련회들을 통해 다음세대들이 성령충만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3.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과눔어촌 100교회 후원, 그리고 비전2020 후원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사역이 힘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 교회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